

함평에 국화꽃 세상 열린다

오늘부터 17일 간 '국향대전' 미디어아트 등 아관광관 연출 농특산물 구매 라이브커머스도

'축제-관광 1번지' 함평군의 대표 축제인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5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간 손님맞이에 나선다.

함평군은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돌아온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5일 개막하며, 개장식 행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장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축소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추진한다. 개장식에 참석하지 못한 관람객들은 유튜브 채널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

개장식은 식전행사인 1·2부와 본 행사인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읍 시가지에 조성된 인피오라타(길 바닥을 꽃으로 장식) 거리에서 1부 함평국화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와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2부에는 이상의 함평군수가 국화 향 가득한 함평전 거리를 행진하며 포토존 소개에 나선다.

오후 6시부터 함평엑스포공원 중앙광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3부 개막행사를 진행한다.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담은 가무극 공연부터 미디어파사드, 불꽃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올해 국향대전은 미디어아트부터 600여 점에 이르는 아관광관 조형물이 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곳곳에 설치돼 있어 함평을 찾은 관람객에게 국화와 빛의 향연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장을 찾지 못한 관람객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함평의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부터 행형색색 국화 조형물을 유튜브로 관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함평읍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보부상 레크리에이션과 특산물 경매, 상인음식 뽕내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함평을 찾은 관람객들이 대형 국화조형물 앞에서 꽃을 구경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군은 나비축제부터 국향대전까지 23년 이상 축제를 개최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축제-관광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향대전 입장권은 현장 구매시 성인 7000원, 청소년·군인 5000원, 어린이·노인·유치원생 3000원이며, 개장일인 5일 이전에 티켓링크 등을 통해 사전에 매시 10% 할인된 가격에 국향대전을 즐길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배 특구' 전국 최우수 특구 선정

195개 지역특구 평가서 1위 대통령 표창·포상금 2억 수상

나주시가 중기부 지역특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나주배 산업특구'로 선정됐다.

4일 나주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에서 나주배 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 2억 원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구는 기초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0년 금천면 일원 배 과수 재배단지 면적 약 2900만㎡를 배 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나주배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오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제5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전국 195개 지역특구 운영 성과를 평가·발표했다.

나주배 특구는 서면·현장·발표 등 3단계에 걸쳐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특구 목표 달성도, 규제 특례·특화사업·특구운영 우수사례 등 부문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특구 지정의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발표평가에서는 기존 민간특구위원회 50명의 대국민 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해 나주배 산업 우수성을 한층 더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중에서는 특구운영 우수사례인 '코로나19 대응 노력 및 성과'와 '수출활성화', 'R&D 및 가공식품 개발' 부문 등이 고르게 호평을 받았다.

나주배는 1967년 대만에서부터 시작된 해외수출 시장 확장에 따른 '나주배 세계화'도 순항 중이다.

나주배는 미국·호주·브라질·아르헨티나 등 11개국으로 수출관리를 넓혀오며 2018년부터 매년 평균 2800여t의 배를 수출, 266억원 규모 수출 이익을 달성했다.

100%나주배로 만든 배즙 'Bae Juice'는 숙취 해소 효과로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부터 호주 최대 유통망인 'Woolworths' 959개 매장 입점, 지금까지 76t 물량의 2억8500만원의 수출 판매고를 올렸다.

또 시는 보해양조(주), 나주시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와의 배 와인 공동개발에 착수해 상품화를 앞두고 있으며 배가공용 원물 연간 165톤을 맥도날드에서 출시한 '배 쥬리' 재료로 공급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우수 특구 선정에 기회를 나주배 품종다양화, 생산시설 현대화, GAP생산 기술 실천 등 기후변화 대응과 가공품 개발·육성에 따른 부가가치 확대,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배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가치 창출에 힘써가겠다"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배 산업특구 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장성군,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내일 개최

장성군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다문화가족을 위한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한다.

장성군은 오는 6일 오후 2시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1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연다.

현장에는 다문화가족과 유두석 장성군수, 임동섭 장성군의회 의장 등 90여 명이 참석하며, 10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이 준비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수여와 축하 등의 식순으로 이어진다.

행사 중간에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깜짝 행운권 추첨과 축하공연 등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어울 한마당' 순서에서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이야기마당', '장기자랑'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행사"라면서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공공하수도 사업, 국비 107억원 확보

13개 사업 공공수역 수질 보전

화순군이 13개 공공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107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161억원으로 신규사업 2곳과 계속사업 11곳이다.

화순군은 내년도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광덕택지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한다. 하수관로 6.02km를 매설하는 공사다.

화순군은 면 소재지 중 유일하게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도암면 원천리 등 6개 지구에 81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19개소, 관로 10.4km 등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3개 지구에 16억원을 투입,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고도처리를 개선했다.

화순군이 시행하는 전체 하수도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4개 지구(529억원) ▲마을 하수도 정비 6개 지구(436억원) ▲환경기초시설 3개 지구(147억원) 등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수도 사업을 제때 추진해 공공수역 수질 보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선정

담양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AI-IoT(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연동 혈압·혈당·체중계, AI 생활스피커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다.

사업 대상자는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등 다양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받게 되며, 기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비대면 건강관리를 도울 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와의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격 서비스는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본인 소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